

대통령 물가 꼬집자... 식품가 '가격 인하' 눈치게임 시작됐다

李 “장바구니 물가 불안정하면 삶 개선 체감 어려워” 대한제분·CI제일제당·삼양사 일제히 밀가루 가격 인하 제빵·라면업계 “복합요인... 소비자가 낮추기 쉽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빵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폭 집어 지적하자, 제분업체가 일제히 밀가루 가격을 내리며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했다.

일각에서는 식음료 제품의 주 원료인 밀가루와 설탕 가격이 내려가면서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업체들은 고회율과 고물가로 밀가루 뿐만 아니라 다른 원재료 가격이 오른 데다, 인건비 부담도 커진 상황이라 밀가루 가격 인하가 실질 소비자 체감 물가에 반영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I제일제당과 삼양사, 사조동아원은 전날 일제히 소비자용(B2C)과 업소용(B2B) 밀가루 가격을 인하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지표가 좋아지더라도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의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검찰이 밀가루와 설탕 등 불공정 담합 기업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것을 거론하며 “실제 조사해 보니 우리나라 빵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그 이유만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빵값 상승의 주범으로 밀가루와 설탕 가격을 지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 등 제분업체 6곳의 대표이사 및 관계자 14명을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총 담합 규모는 5조9913억원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주요 제분업체들이 밀가루 가격을 내린 것을 계기로 소비자 체감 물가도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 예상도 나온다.

설탕은 과자와 빵·아이스크림·초콜릿 등의 주재료이며, 밀가루 역시 빵·라면·과자 등 주요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식품 물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한 제분 업체 관계자는 “밀가루 가격을



인하한 것은 정부의 소비자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가격 인하가 향후 소비자 물가 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밀가루를 많이 사용하는 식품·제분업체들은 밀가루 가격 인하만으로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명을 요구한 한 라면 업체 관계자는 “라면 원재료 중 밀가루가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다”며 “다른 원재료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 최근 고회율까지 겹치면서 제조사로서 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가격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식품 제조 업체 관계자는 “이번에 가격을 큰 폭으로 내린 것도 아니고, 생

산 제품에 밀가루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라 이번 가격 인하가 실질적으로 제조업체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밀가루를 많이 사용하는 제빵 업계에서도 이번 밀가루 가격 인하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지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제빵 업체 관계자는 “밀가루 가격이 내리긴 했지만, 아무래도 계란 등 다른 원자재나 인건비 비중도 높다 보니 소비자 가격을 당장 인하하기 어렵다”며 “또 밀가루를 한번에 대량으로 매입하다 보니, 현재 채고 소진 후 이번 가격 인하가 적용되는 다음 밀가루 구입 시기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뉴시스

“임산부 근로자 고용유지하면 100만원 지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선착순 45건 모집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임산부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등에 따른 부담금을 지원하는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을 오는 10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임산부의 일·가정 양립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여건 개선을 위해 광주시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 사업은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간접노무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산부 근로자의 고용 불안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임산부의 고용을 유지하는 광주지역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며, 임산부 직원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자동 육아휴직제를 통해 출산 전후 휴가 이후 육아휴직 보장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위한 태아검진시간 유급 부여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접수는 10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 45건을 받는다. 신청 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출산 전후 휴가 종료 이후 출산·육아휴직 통합신청서와 태아검진시간 유급 부여 확인서 등 고용 유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서류는 전자우편(lin9958@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https://www.gwangju.go.kr/main.do)과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https://www.gwangju.go.kr/woman/)에서 확인하거나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팀(062-613-79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보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근로자가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임산부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기존 10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임산부를 위한 마련한 패키지 지원과 원스톱 노무상담, 권리구제 등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임채일 기자

전남도, 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13일까지 전통시장·도소매점·음식점 등... 위반 시 행정조치

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에는 ‘농수산

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영근 전남도 수산유통과공과장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도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 구매하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

다”며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전남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역 10개 전통시장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을 환급해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10~14일 추진한다.

남도장터 소풍물을 통해 전북, 민물장어 소비촉진을 위한 직접생산어가 판매품목 할인기획전도 오는 14일까지 함께 추진 중이다. /신영길 기자

전라남도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태, 조기, 전복, 옥돔, 참돔 등 제수용 수산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3일까지 2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남지역 수산물의 명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수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지역 수산물을 구매하도록 진행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

전남농협, 설 ‘직거래 행복장터’... 시중가 최대 30% 할인

남약 하나로마트서... 전남 농산물 할인판매

설 명절을 앞두고 전남산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열린다. 농협중앙회 전남본부는 10일부터 12일까지 농협하나로마트 남약점 특별 판매장에서 ‘설맞이 직거래 행복장터’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장터는 전남지역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시중가보다 10~30% 할인된 가격에 공급해 고물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덜고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장에는 전남 농산물 광역브랜드 ‘상큼애’와 ‘오매향’을 중심으로 사과, 배, 딸기, 레드향, 사인머스켓, 바나나 등 제철 과일과 표고버섯, 육포 등 전남 대표 농축산물이 대거 선보인다.

특히 전남농협이 기획한 ‘동심협력 원

스톱(ONE-STOP) 상차림 세트’도 별도 전시·판매한다. 이 세트는 배와 사과, 밤, 대추 등 제수용 농산물과 일회용 접시·젓가락 등을 함께 구성해 성묘와 차례 준비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광일 농협전남본부장은 “동심협력의 정신으로 역량을 모아 농업인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설을 앞두고 많은 도민들이 직거래 장터를 찾아 전남 농산물의 품질과 가치를 직접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광주시 “설 상차림 준비는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최대 4만원 환급행사...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고객

합,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월곡시장 등 6개 전통시장에서 열린다.

또 수산물 환급행사는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무등시장, 말바우시장, 송정매일·1913송정역시장연합, 우산매일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9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

매한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이다. 예를 들어 5만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면 6만7000원 미만에 해당돼 1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1인당 환급 한도는 농축산물 최대 2만원, 수산물 최대 2만원이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시장(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 말바우시장)에서는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백은정 경제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 이용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종팔 기자



자연속의 가득매일 풍성 가을